

The Gospel of Mark

Sermon 52 – Sermon Notes

Title: “Questioning Christ's authority”

Scripture: Mark 11:27-33

Date preached: September 3rd 2023

Scripture: Mark 11:27-33

27 Then they came again to Jerusalem. And as He was walking in the temple, the chief priests, the scribes, and the elders came to Him. 28 And they said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se things?”

29 But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I also will ask you one question; the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30 The baptism of John—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Answer Me.” 31 And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32 But if we say, ‘From men’ ”—they feared the people, for all counted John to have been a prophet indeed. 33 So they answered and said to Jesus, “We do not know.”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27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성전 뜰을 거닐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28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29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 보아라.” 31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32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 33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It is the Tuesday morning of Passion week. In just three days the Lord Jesus will be nailed to a cross bearing our sins upon His back. Jesus and His disciples are staying in Bethany about two miles from Jerusalem. As they are making their way towards the holy city of Jerusalem they pass the fig tree that Jesus cursed on Monday. As we noted last time trees and plants usually take some time to die. They typically look sick and distressed for some time before they totally die. But not in the case of this fig tree. In less than one day it had gone from being full of green leaves to being withered and ruined. As they passed by Peter drew the Lord's attention to the tree.

We might have expected the Lord Jesus to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to the disciples the deeper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is event. I am of course referring to the fig tree standing as a representative for the nation of Israel.

The nation had turned its back on God and was not producing the fruit He expected. Therefore as a consequence God was about to withdraw His protection over the nation. From this point on the primary role of spreading the gospel would be handed over to the Gentiles.

As a consequence the Jewish religious system that had become corrupted would wither and die just like the fig tree. As you probably know in 70 AD the temple and the religious practices surrounding it was completely destroyed. But instead of talking about these things Jesus begins to give a lesson on the importance of faith and prayer. We might think this odd but if we pause for a moment we can see the connection.

Jesus is saying that the withering of the fig tree came about due to faith in prayer. He prayed to the Father and had faith that God the Father would do what He asked. It was God that answered His prayer and cursed the tree. Certainly from a human perspective it is impossible to wither a tree without even touching it in so short a time. Even for us terrible gardeners it's not possible. But when our prayers are in line with God's will then amazing things can happen. Let us remind ourselves of the important points Jesus makes regarding faith and prayer.

The first point concerns faith. If we want God to answer our prayers then naturally we must have faith that He hears and has the power and will to act. If we doubt that God can answer our prayers then we severely hinder the possibility that God will answer them. Faith, by definition is stepping out without having absolute empirical evidence or proof. Every day we are engaged in acts of faith. For example, on my way to work I have to cross a public footbridge. I don't pause each morning to check the bridge for cracks or signs of structural fatigue. I have faith that the bridge is sound and won't collapse. Prayer is much like this. When we pray we must put our trust in God.

When we have complete faith, without doubt, Jesus tells us we are tapping into God's immeasurable power. The Lord gives us a very vivid illustration of this when He tells us that with God's enabling we can move mountains. As I said last time this was a common way in Jesus' day of describing doing the impossible. So what Jesus is saying here is that if you truly believe, have faith and don't doubt then your seemingly "impossible" prayers can be answered. This is because God is all mighty. Nothing lies outside of His ability to perform. However as I told you last week this does not mean that God is obliged to give you everything you pray for. Prayers that are answered are prayers that are in line with God's will. There is also another important consideration that the believer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God you see has certain expectations for His children. In His wonderful grace He forgave us for our rebellion against Him. We are all sinners, and all of us deserved the just punishment for sin; death. However God showed us mercy and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die on a cross for our sins. When we reflect on the price Christ paid to buy us out of the bondage of sin and death it ought to motivate us to forgive others. No Christian should ever say,

"Well I'm glad Christ died for me and earned me God's forgiveness but, I'm not going to forgive this person who wronged me!"

If we ever feel like this we should question whether we have ever really experienced God's true forgiveness. This is where we concluded last week.

Today we will see the Lord's authority questioned by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3 일 후에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2 마일 떨어진 베다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월요일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를 지나갑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나무와 식물은 보통 죽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죽기 전에 한동안 병들고 시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안되어 푸른 잎으로 가득했던 것이 시들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베드로는 주님의 주의를 나무로 이끌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분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보호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복음 전파의 주된 역할은 이방인들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유대교 제도는 무화과나무처럼 시들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사듯이 서기 70 년에 성전과 그 주변의 종교 관습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린 것은 기도를 통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아버지께 기도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무를 저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무를 만지지도 않고 시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정원사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점들을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요점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들으시고 행하실 권능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지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가능성을 심각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경험적 증거 없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출근길에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다리에 균열이나 구조적으로 부실한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다리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와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치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생생한 예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에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능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 주실 의무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응답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믿는자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특정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은혜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 - 죽음 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기쁘지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 □□□□□□□□" 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의심해야 합니다. 지난 주에 여기에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Introduction

We are entering into an interesting section of Mark's gospel. New Testament scholars refer to it as the "controversy dialogues." Between Mark 11:27 and 12:44 we read about five dialogues or exchanges that all take place in the temple. They can be seen to parallel the five earlier controversies Jesus had in Galilee (see Mark 2:1–3:6). Naturally, now that He is in the religious and cultural centre of the nation the attacks and antagonism towards Him are intensified.

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아췌든 그들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특히 성전 구내에 도착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수많은 출입문이 있는 거대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시기였습니다. 성전은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당국이 그분이 거기에 도착하셨음을 알기 전에 예수께서 얼마 동안 걸어 다니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성전 당국과의 대결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싫어했고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저항을 시작하기 위해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마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세 그룹은 71 명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주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소수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공식적이고 중요한 대표단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질문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좋은 질문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아자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도록 뇌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객원 목사가 이곳에서 설교하기 전에 저는 그들을 주의깊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이전에 어디에서 설교했는지, 어디에서 공부하고 훈련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은 제 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당국도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과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주장하는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28 And they said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And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se things?"

The Jewish officials approach Jesus to question Him about where His authority comes from. We should note that they had the authority to arrest Him on the spot. They most likely would have done this but His popularity among the people made it difficult. Had they tried to take Him forcefully into custody it might have sparked a protest or riot. So they come instead with a question. They are hoping that He will say something that will allow them to arrest Him.

They want to know the exact nature and source of His authority. In particular, they want to know who gave him the authority to cleanse the temple and drive the merchants and money changers from the Court of the Gentiles. We'd ask a similar question of someone who appeared today and told us to do something. If someone knocked on your door and told you to come outside you'd ask them who they were, what credentials they had and who had given them the authority to give you this order. If the person had come from the police or was a civil servant you'd go outside. If it was just a neighbour you'd shut the door.

So these religious and civil leaders want to know where Jesus' authority comes from. As we have seen on a number of occasions Jesus authority to do and say things has been questioned. Way back in chapter 1 you may remember the following verse.

21 Then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taught. 22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e taught them as one having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Mark 1:21-22)

Why you might ask was this such a big issue for the Jewish leaders. Well it's very simple. It comes

이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함과 자부심으로 귀결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권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정교한 권위 제도 아래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층 구조에 속해 있었으며 그 구조 안에서 특정 방식으로 다른 □□□□ 작용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구조 안에서 지내면 사계처럼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제도를 무시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단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권위"라는 단어를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강력한 단어이며, 어쩌면 위협과 두려움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책임자를 지칭합니다. 아마도 정부, 경찰, 직장 상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는 권위(authority)라는 단어에 힘, 허가, 권리 부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책임자 또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규범을 넘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권위자들은 그들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국인은 정부가 Covid 전염병 □□□□ □□□□□□□□ □□□□ .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영국 대중을 "통제하는 것"을 즐겼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만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8 장 18 절에서 이끄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수에게 권위의 일부, 조금, 약간 또는 대부분이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시고 말하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읽고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는지 봅시다.

29 But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I also will ask you one question; the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As we have seen before Jesus frequently used this common rabbinical device. Answer a question by asking another question. What's interesting here is that the usual power dynamic is reversed. Usually the powerful agent in an exchange gets to ask the question and the lesser agent is only permitted to answer. So in police interrogations for example the accused (the lesser agent) is just expected to answer the questions, not ask questions themselves. Here though Jesus as the seemingly “weaker” party is turning things around. He makes a conditional promise with these powerful men. I'll only answer your question if you first answer mine. Let's find out what His question is.

29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물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일반적인 랍비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힘의 균형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강력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약한 상대자는 답변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 심문에서 피고인(약한 상대)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겉보기에 "약한" 당사자인 예수님이 상황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강력한 □□□□□□□□□□ 너희가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만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의 질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0 The baptism of John—was it from heaven or from men? Answer Me.”

The Lord Jesus' question is direct and straight to the point. It's direct in English but even more forceful and demanding in the original Greek. We might paraphrase Jesus' question as follows,

“Do you think that God was behind John's mission, or not?”

What He is essentially asking these Jewish authorities is what they think regarding the work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The word “baptism” is used here as a shorthand for the outward expression of John's work. Why we might ask is He taking them back to John the Baptist? Well, for a very good reason. God does not teach us new truth if we have rejected the truth He has already revealed.

So it's the perfect question to ask. It will truly expose their deep levels of hypocrisy. Here's why. John the baptist had very clearly testified that Jesus had come from God. He was the Messiah and as a consequence came with a divine blessing. John had told the people that Jesus was doing God's work. Therefore if the Jewish authorities acknowledged that John had been sent by God they would have to accept what he said about Jesus. This would mean that Jesus did indeed have divine authority to cleanse the temple. You can see their dilemma. Deny John who everyone respected as a prophet, or else accept John and then try to explain why you ignored what he said about Jesus. What to do? Let's read on and see what happens.

30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 보아라”

주 예수님의 질문은 직접적이고 핵심을 꿰뚫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직접적이지만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요한의 사명 뒤에 계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분이 본질적으로 이 유대 권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는 요한의 사역을 오직으로 표현하는 약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들의 관심을 세례 요한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사하신 진리를 우리가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질문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깊은 수준의 위선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 결과 신성한 축복으로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권위자들이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요한이 예수에 대해 한 말 또한 받아들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참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딜레마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존경하던 요한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요한을 받아들이고 그가 예수에 대해 한 말을 무시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1 And they reasoned among themselves,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32 But if we say, ‘From men’ ”—they feared the people, for all counted John to have been a prophet indeed.

The chief priests, scribes and elders get together to confer. That should strike you as interesting. It's interesting because it shows us their real concern.

If their real concern lay in discovering the truth they could have simply and easily answered. But of

course the truth was not their real concern. They were not really interested in discovering who Jesus was and thereby locating the source of His authority.

No, they were more worried about preserving their own position and status. Warren Wiersbe puts it nicely in his commentary,

“They were not asking “What is true?” or “What is right?” but “What is safe?”

They are looking for what we call a “politicians answer.” A way of answering that doesn't really answer the question but instead deflects any potential condemnation or blame.

Jesus' question is so piercing and to the point that however they answer they will fail in some way. If they say that they believed, as did most of the people that John had been sent by God as a prophet what would it say about them? It would say that they were ignoring the Words of God. If you believed John was a divine prophet sent with a message from God why didn't you listen and take heed of his message. To admit such a thing would undermine their credibility as the spiritual leaders of the people. It would be like me getting up to preach and saying that I no longer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God. That would rightly be the end of my time as pastor here. Why would you listen to a pastor that doesn't believe what he teaches.

The other possible answer isn't helpful to them either. If they say that they believed that John wasn't sent by God, that he was just a wise, albeit strange religious figure what will that reveal about them? Basically that they were unable to detect God's divine presence. Clearly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nd unique about John. Everyone recognised it. So it would show that they were badly out of step with most of the people. That they were spiritually blind. Again this calls into serious question their ability to lead the people. It would also demonstrate that they had an agenda and are not really being led by the Holy Spirit. Their additional concern or worry is that to deny John would provoke the crowd into anger. They all recognised John as a prophet sent by God. To say that he wasn't a man sent by God would most likely cause a violent protest. I suppose it would be rather like going into St Paul's Cathedral in Rome and shouting out that the pope was not a good man. I doubt you'd be allowed to shout for long.

So how can these men answer Jesus? Let's read on and find out.

31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32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의논합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진리를 찾는거라면 간단하고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분의 권위의 근원을 찾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지키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Warren Wiersbe 는 자신의 논평에서 이를 멋지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 또는 “무엇이 옳은가?” 가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가?” 를 묻고 있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대답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실패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 믿었던 것처럼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진 신성한 선지자라고 믿었다면 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그러한 일을 인정하는 것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Submitting to the right authority

I heard someone being interviewed on the British news the other day about public order in the UK. He said something that I found quite alarming. He said that Britain was becoming a more lawless place. His assessment was that modern Britains had little respect for law and order and as a result were acting in selfish ways. Basically they were ignoring the laws that govern society and make it a good place for everyone. There may be many socioeconomic reasons for this. But I have certainly seen over my lifetime a steady decrease in respect and admiration for figures of authority. When I was a child we were taught to respect police officers, government workers and politicians. If you spoke to one you were always to be polite and call them "Sir or ma'am." Now many people have little or no respect for these people.

Such an attitude leads over time to a broken dysfunctional society. You may at this point be wondering what this has to do with you. Let me tell you.

This rebellious attitude towards authority has also pervaded the church. After all we are all the owners of rebellious prideful hearts and all of us secretly want to be in charge. Don't you want to be the "god" of your life?

So some modern Christians have little respect for the authorities in the church. The pastor and elders are nice enough, but I can ignore them if I choose. Equally, many have shifted from holding up the bible as God's authoritative word to being merely a book of helpful guidelines. Guidelines that can either be adopted or rejected. Worse than both of these is a rej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ultimate authority in ones's life.

This of course has led to a dysfunctional church. If the pastor is just "some person" speaking why bother paying attention. I could just as well read a book or listen to another pastor on the internet. If the bible is just an interesting or informative guide book then I can pick the parts I like and ignore the parts I don't. If I can be a Christian and not submit myself completely to the authority of Jesus then I can remain a carnal Christian. I get to go to heaven whilst enjoying my "sins" in the here and now.

I hope that none of you listening have fallen, or are tempted to fall into these errors. It is God's desire that we willingly submit to those He has placed in authority over us. He has given us His precious revelation to be our foundation. We don't get to pick and choose which parts of the bible we like. He sent His Son to be our ultimate authority. We are to joyfully submit ourselves to and live in obedience to Him all the days of our lives.

1 장당한 권위에 순종하기

얼마 전에 영국의 공공 질서에 대해 영국 뉴스에서 누군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저는 꽤 놀라운 것을 알게됩니다. 그는 영국이 점점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영국인들이 법과 질서를 거의 존중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이기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사회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오는 동안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경찰관 공무원 정치인을 존중하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항상 예의 바르게 "Sir 또는 ma'am"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러야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거의 또는 전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진 역기능 사회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이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는 교회에도 만연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반항적이고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이고 속으로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 "신 god"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권위자들을 거의 존중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충분히 좋은 분들이지만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던 것에서 단순히 도움을 주는 자침서 정도로 여깁니다.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침서. 이 두 가지보다 더 나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궁극적인 권위자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 기능을 못하는 교회로 이어집니다. 목사가 그저 말하는 “누군가” 인데 굳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책을 읽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단지 재미있고 유익한 안내 책자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시할 수 있어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 자신을 예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죄를 즐기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되는거야

여러분 중 누구도 이러한 오류에 빠지거나 유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위를 두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소중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우리 뜻대로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권위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2 Admitting we are wrong

It's not easy to admit we are wrong. All of us find it difficult to have to admit we said or did the wrong thing. The higher we go up in society the harder admitting we are wrong becomes. The disastrous recent scout jamboree held in Korea is a good case in point. Someone high up in government made the wrong decisions regarding where to hold the event, what facilities to provide, and to properly prepare for extreme weather. However for such a person to openly say they were wrong, or failed to properly plan ahead would cost this person their job.

The religious leaders in Jesus day were in a similar position. They considered themselves to be in authority. To have to admit that they were wrong and believed the wrong things about John the baptist and now Jesus was very difficult for them.

It was something they simple could not do. Therefore they professed ignorance. They pretended not to know. What a terrible choice they made. Had they been honest they would have heard a life transforming truth from Jesus. Instead, He left them in ignorance, and they were we assume lost.

Let us now turn and consider our own lives. Are we stubbornly holding onto things that we know to be wrong. Are we refusing to admit to someone that we are wrong for fear of losing face. How much damage might our stubborn natures be doing?

It may also be that we are holding onto a wrong set of beliefs or a wrong interpretation of something scriptural. Again to admit we are wrong may cause us embarrassment. It may be that people we respect look down upon us for holding such a view. But how much better is it to admit that we were wrong. That for whatever reason we believed something that was not true. Only by admitting our error can we come i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move forward in the right direction. So let us not be too proud to admit where we are wrong. Let us repent and confess where necessary and always be people who seek after truth wherever that leads.

2.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 말했거나 잘못된 일을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바탐 한 스카우트 캠프가 좋은 예입니다. 행사를 어디서 개최할지, 어떤 시설을 제공할지,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비할지 등 정부 고위층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위층 결정권자가 자신이 틀렸다고, 또는 미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사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비슷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것을 믿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른 척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분은 그들을 무지 속에 내버려두셨고 그들은 영생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체면을 잃을까 봐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고한 본성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나 성경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고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진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면 잘못을 인정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필요하다면 화개하고 고백하며 어디에서든 항상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됩시다.

